

# 김일성 부자 초상화 아래 은색 짝짝이가 씩 없이 부딪쳤다

## 평양, 그리고 북한축구의 현주소

평양은 '가깝고도 먼 곳'이다. 폐쇄적인 사회특성상 북한과 평양은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문호를 열어왔다. 그런 면에서 3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B조 예선전은 한국 미디어가 평양의 현실과 북한축구의 실상을 모처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번 대회를 현장에서 지켜본 공동취재단의 눈을 통해 평양과 북한축구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편집자 주).

남북대결 열린 김일성경기장 가득 찬 관중  
일사불란한 응원... 한국 공격 땀 거센 아우

5월1일경기장, 불시착한 낙하산 모양 설계  
15만명 수용... 한국 선수들 웅장함에 압도

두 곳 모두 비용·관리 문제로 인조잔디 교체



1 여자축구 남북대결이 벌어진 7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의 모습. 본부석 꼭대기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대형 사진이 걸려있다. 2 장철구총합대학생들이 여자축구 남북대결을 보면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3 여자축구대표팀이 훈련장으로 사용한 5월1일경기장. 무려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경기장이다.



3 여자축구대표팀이 훈련장으로 사용한 5월1일경기장. 무려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경기장이다.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축구의 심장부가 한국 취재진에게 공개됐다. 북한은 3일부터 11일까지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B조 예선전을 개최했다. 윤덕여(56)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과 동행한 국내 취재진도 자연스럽게 김일성경기장을 비롯한 평양의 모습을 일부 목격할 수 있었다.

평양에는 서산축구장, 양각도축구장 등이 있지만 대표적 경기장은 김일성경기장과 5월1일 경기장(능라도경기장)이다.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이 이번 예선을 치른 김일성경기장은 북한남자축구대표팀이 2011년 11월 벌어진 일본과의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북한은 일본을 상대로 예상외의 우세를 보인 끝에 1-0으로 이겼는데, 소수의 일본원정승원단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북한 관중의 기세에 눌려 별

다른 함성조차 내지르지 못했다. '윤덕여호' 역시 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펼쳐진 남북대결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4만 2500명의 북한 관중은 키오프 2시간 전부터 경기장 옆 개선문광장 주위로 몰려들었다. 경기장 분위기는 한국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북한 응원단은 금색 종이나팔과 은색 짝짝이를 씩 없이 두들기며 커다란 소음을 토해냈다. 한국의 공격 때는 일방적 아우가 쏟아졌다. 양 팀 선수들의 기싸움도 경기 초반부터 팽팽했다. 전반 5분에는 골키퍼 김정미(33·인천현대제철)가 북한 위점심의 페널티킥을 견어낸 뒤 재차 볼을 잡는 과정에서 북한 선수에게 얼굴을 가격 당했고, 양 팀 선수들이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일성경기장 옆 개선문은 김일성이 해방 후 북한에서 처음 연설했던 장소를 기념한 건축물이

다. 1982년 60m 남짓한 높이로 완공됐다. 개선문 완공에 맞춰 평양공설운동장이 김일성경기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평양 시내 다른 상징적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경기장 외부 중앙 상단에 걸려있다.

우리 대표팀이 6일 훈련을 소화한 5월1일경기장도 북한이 자랑하는 건축물들 중 하나다.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만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대동강 능라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노동자의 날'을 강조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로 5월1일경기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1989년 5월 1일 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를 치르면서 개장했다.

5월1일경기장은 불시착한 낙하산 모양으로 설계됐다. 관중석을 16개의 아치 모형이 덮고 있고, 가장 높은 곳은 61m에 달한다. 한국 취재진을 맞은 경기장 안내원은 "진도 8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자랑했다. 큰 규모에 맞게 스탠드 아래쪽 경기장 내부에는 큰 통로와 도핑실, 토론회실, 워밍업실 등 여러 공간이 있고, 통로 벽면에는 2013년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당시의 북한여자대표팀 우승 장면 등 북한의 기념적인 스포츠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5월1일경기장은 1990년 남북통일축구가 개최된 장소로도 유명하다. 윤 감독은 당시 선수로 참가한 이후 27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경기장 곳곳에 국제축구연맹(FIFA) 로고가 표시돼 있기도 하지만, 본부석 스탠드 위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다. 또 10만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스타디움처럼 경기장 외부에서 필드로 곧바로 진입하려면 어둡고 음산한 지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북한은 상징적인 축구경기를 대부분 김일성

경기장과 5월1일경기장에서 치른다. 북한프로 축구 1부리그에는 15개 팀이 참여하는데, 강팀으로는 4.25체육단, 기관차, 화백체육단 등이 있다. 1부리그 팀들은 만경대상, 백두산상, 보천보배상 등 1년에 4개 정도의 대회에 출전하고, 매 대회 결승전은 김일성경기장과 5월1일경기장에서 번갈아 열린다.

김일성경기장과 5월1일경기장 모두 2000년대 중반 이후 운영비용과 경기장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인조잔디를 깔았다. 경기와 훈련을 위해 두 경기장을 모두 사용해본 여자대표팀 주장 조소현(29·인천현대제철)은 "5월1일경기장은 생각보다 더 웅장한 것 같다. 느낌이 다르다"며 "김일성경기장은 인조잔디의 길이가 길다. 인조잔디 수준은 한국과 다르지 않고, 캐나다에서 열렸던 여자월드컵(2015년) 당시의 인조잔디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평양 | 공동취재단

## 쇼케이스 같았던 평양...저녁 되자 어둠 속으로

### 공동취재단 평양 체류기

북측 인사들 김 부자 초상화 촬영에 민감  
박근혜 탄핵 등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도

금단의 땅, 평양의 겉모습은 화려했다. 2015년 신축된 평양 순안공항은 김포공항을 연상케 했다. 세련에선 한국 기자단의 소지품을 모두 검사했지만, 처음 맞닥뜨린 북한인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생글생글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졌다.

순안공항에서 숙소인 양각도호텔로 향하는 길은 '쇼케이스' 같았다. 장안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영명거리 등 북한이 자랑하는 화려한 거리를 두루 거치도록 동선이 짜였다. 행인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차려입고 있었고, 자전거를 탄 춘부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다. 기자단과 선수단은 대동강 양각도에 세워진 47층짜리 양각도호텔에 함께 묵었다. 불링장, 이발소, 사우나를 비롯해 회전전망식당까지 없는 게 없었다.

기자단은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을 볼 수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도 통제됐다. 이동 중

버스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순 있었지만, 중간에 하차는 불가능했다. 한 차례 예외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해방 후 평양에 들어와 처음 연설을 했다는 곳에 세워진 개선문에서였다. 그마저도 김일성경기장에서 채 100미터가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경기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마주친 평양시민은 없었다.

북한 민중화해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나온 인사들이 기자단을 사실상 1대1로 마크했다. 이들은 기자단이 서울로 송고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보길 원했다. 특별히 문제삼거나 고치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

였다. 북한이 민감해했던 부분은 군인의 모습을 촬영할 때였다. 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촬영할 때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 김 부자의 초상화를 촬영하자, 북측 인사는 "(초상화가) 나무에 가리면 안 된다", "정면으로 찍어야 한다" 등의 토를 달았다.

화려해보였던 평양은 저녁시간이 되면 어둠으로 덮였다. 새벽 4시 호텔 창밖을 바라보니 대동강변에 화려하게 세워진 고층건물에 불빛이 전혀 없었다. 단지 멀리 보이는 주체사상탑과 건너편 김책공대의 한 건물에 걸린 김 부자의 초상화에만 불빛이 들어와 있었다.

북측 인사들은 한국 기자단에게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다. 한 기자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지지하며" 최근 우리 민족의 수치가 있었다. 기자 선생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월호와 탄기국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한국의 대선에도 관심이 컸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유력하다고 보느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던데 사실이나" 등을 물었다.

기자단은 6일간의 체류를 마치고 평양에서 나올 때(8일)도 곤욕을 치렀다. 일찌감치 공항에 도착했지만, 오전 11시20분 출발 예정이던 평양발 선양(중국)행 비행기는 아무런 설명 없이 오후 4시30분으로 연기돼 있었다. 이유를 물었으나, "사정이 있다"는 말만 돌아왔다. 고려항공 기내 모니터에는 공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부자를 찬양하는 공연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평양 | 공동취재단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 격투기

## '원미닛' 김수철, 김민우도 원미닛?

### 15일 ROAD FC 038 판권포인트

김수철-김민우 밴텀급 챔피언 놓고 맞대결  
남의철 복귀...명현만-바넷 무제한급 빅배

벳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편지와 격의 축제가 4월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진다. 눈을 땔 수 없는 흥미진진한 대전들로 가득찬 XIA OMI ROAD FC 038이다. 벳꽃놀이보다 재미있는 종합격투기 파티에는 다양한 메뉴가 등장한다. 공석이었던 밴텀급 챔피언 자리를 놓고 아시아 최강 '원미닛' 김수철(26, 팀포스)과 '코리안 모아이' 김민우(24, 모아이짐/MMA스토리)가 메인이벤트에서 격돌한다. 100만 달러 토너먼트 'ROAD TO A-SOL'예선으로 돌아온 '코리안 불도저' 남의철(36, 사내남격투기)과 미국 레거시FC 챔피언 출신 마이크 브론졸리스(38, 레블루신 도조/하이어나 무에타이)의 맞대결,

'한국 헤비급의 자존심' 명현만(32, 팀남남/압구정점)과 '허기 배어' 크리스 바넷(31, 바넷 태권도 아카데미)의 무제한급 매치까지 엄청난 선수들이 벳꽃보다 훨씬 진한 벳꽃의 열무를 예고했다.

●ROAD FC 밴텀급 타이틀 매치 김수철은 자타공인 아시아 밴텀급 최강이다. 상대를 1분 이내에 끝낸다는 자랑스러운 별명 '원미닛'으로 불린다. 강력한 타격능력에 그라운드 기술도 뛰어나다. ROAD FC 정문홍 대표의 수제자로 유명하다. 통산 전적은 15승5패 1무. 최근 9경기에서 8승1무의 무패행진이다. 상대 김민우는 밴텀급의 떠오르는 강자다. 빠르고 강한 타격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스타일이다. ROAD FC Young Guns로 데뷔해서 꾸준히 경기를 치르며 대표선수로 성장했다. 통산 전적은 8승1패, 최근 3연승의 상승세다.

### 남의철 복귀전

3년 만에 고향으로 복귀하는 남의철이 100만 달러의 대박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다. 토너먼트 예선에 참가한 남의철의 복귀전 상대는 마이크 브론졸리스. 미국 단체 레거시FC 웰터급과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으로 25번의 프로 격투기 경험을 가진 벳태랑이다. 킥백싱 베이스의 타격이 뛰어나다. 183cm 키에 리치는 191cm다. ROAD FC 라이트급 전 챔피언이자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는 남의철에게도 부담스러운 상대다. 마이크 브론졸리스는 "의욕적으로 타격전을 하겠다.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케이지 위에서 잠들 것이다. ROAD FC 경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합이 될 것"이라며 남의철의 주먹을 경계하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 무제한급 빅 매치

ROAD FC 038의 코메인 이벤트로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무제한급 빅 매치가 펼쳐진다. 명현만과 크리스 바넷이 맞붙는다. 명현만은 대한민국 임식격투기 헤비급 최강자로 불리며 임식격투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2015년 10월 ROAD FC 026에 출전해 ROAD FC에 데뷔했다. 그가 2승을 따내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8초. 2경기 모두 일찍 초를 다루는 KO승으로 경기를

끝냈다. 2016년에 벌어진 ROAD FC 무제한급 토너먼트 때는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결국 초대 챔피언이 된 마이티 모를 상대로 아웃복싱으로 잘 싸웠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벳 크랭크를 허용하며 졌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라이진FF(RIZIN FF) WORLD GP 2016에 출전해 마이크로 크로코프 격투했다.

크리스 바넷은 신장 175cm, 체중 140kg의 체격으로 겉으로는 둔해 보이지만 오랜 태권도 수련으로 빠르고 다양한 킥을 구사한다. 독특한 입장 퍼포먼스와 승리 세리머니로 두터운 팬 층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단체 IGF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라이진FF(RIZIN FF)1에 출전했다. 알리스타 오브레인의 스포링 파트너이자 팀 동료다.

한편 'ROAD TO A-SOL'은 지역예선을 차츰 마무리하고 있다. 1월28일 동남아시아 지역 예선, 2월11일 인터내셔널예선 A조, 2월25일 러시아 지역예선, 3월20일 일본 지역예선까지 진행되며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결정됐다. 4월 15일 인터내셔널 예선 B조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김수철 vs 김민우



남의철 vs 브론졸리스



명현만 vs 바넷